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 발언 속 업종 순환매가 전개되며 강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3일(목) 미국 증시는 중동발 유가 불확실성,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브로드컴(-2.7%)의 주가 약세 등 부담 요인이 상존했으나,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 발언에 따른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세 진정 속 엔비디아(+1.8%), 테슬라(+5.4%), MS(+2.9%) 등 M7주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상승(다우 +1.2%, S&P500 +1.1%, 나스닥 +1.4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0.1%).

“최근 디스인플레이션의 징후가 일부 등장”, “향후 2주간 이 흐름 지속 시 9월 동결 선호” 입장을 보인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금리급등발 증시 불안은 진정된 모습. 향후에도 금리의 추가 급등세가 억제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, 이는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 8월 고용 지표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.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신규고용이 5.5만건(vs 7월 -2.3만건), 시간당 평균임금이 +0.3%(MoM vs 7월 +0.1%)로 형성됐으며, 컨센에 부합할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와 높지 않은 임금 증가세의 조합이 증시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결과가 될 예정.

침체 우려를 높이지 않으면서도,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확대된 인플레이션, 9월 금리인상 우려를 완화해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. 반면, 신규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, 임금상승률도 예상보다 높아질 시 연준의 9월 인상 우려를 다시 높임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.

다만, 최근 ADP 민간 고용 부진과 JOLTS 구인건수 부진(저채용, 저해고) 등 여타 고용지표 둔화를 감안 시, 8월 고용은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. 따라서, 이번 고용 이벤트를 통해 최근 금리, 유가 부담으로 눌렸던 국내의 증시의 멀티플 및 수급 환경이 개선되는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갈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미국 증시 반등, 브로드컴의 호실적 등으로 강세를 이어갔으나, 장 중반 일시적인 주가 반락이 나타난 이후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혼조세로 마감(코스피 +0.3%, 코스닥 -1.7%).

금일에는 월러 이사 발언 효과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및 미국 증시 강세, 코스피 200 야간선물 1%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 장중에는 미국 8월 고용 대기심리, 엔화 향방 등 매크로 변수를 주시하면서, 업종 순환매 장세로 전환할 전망.

한편, 전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증시가 급락한 이후 약 30~40분 만에 빠르게 낙폭을 되돌렸던 이상 현상이 출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. 같은 시간대에 일본 닛케이225, 미국 나스닥 선물 등 여타 증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출현하다 보니, 그 배경과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.

여러 뉴스플로우와 유가, 금리 등 여타 가격 지표 변화를 통해 급락 배경을 찾아보면, 1) 이란의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공격 소식(but 국제 유가나 미국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), 2) 브로드컴 시간외 주가 약세(but 국내 장 초반부터 시간외 약세 진행), 3) 달러/엔 155엔대 진입(BOJ의 긴축 전망으로 직전일 158엔대에서 급락) 등 엔화 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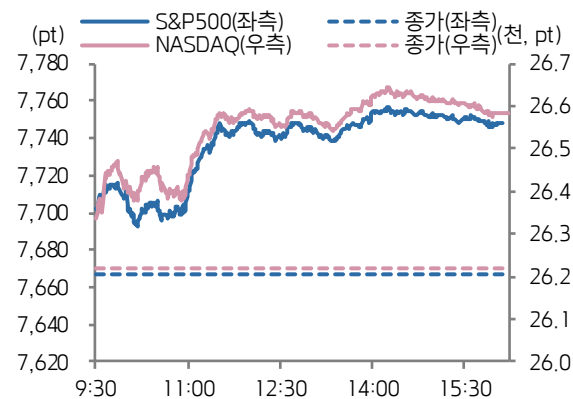
세로 인한 엔-캐리 청산 우려, 4) 단순 외국인 코스피 선물 매도세 강화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수급 불안 일시 확산 등 여러 요인들을 지목해볼 수 있음.

일단 1~4)의 요인 중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엔화 강세였던 만큼, 엔-캐리 청산 우려와 관련된 글로벌 알고리즘 매매였을 확률이 높아 보임. 하지만 본격적인 신규 약재의 출몰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포지션 변화가 만들어낸 단기 수급 이슈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.

더 나아가, 이 같은 순간 급락 이후 주식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증시 회복 탄력성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. 현재 코스피의 선행 PER은 5.1배로 진입 매력은 여전히 높으며, 9월 이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약 3% 상향되는 등 증시 펀더멘털도 양호하다는 점도 마찬가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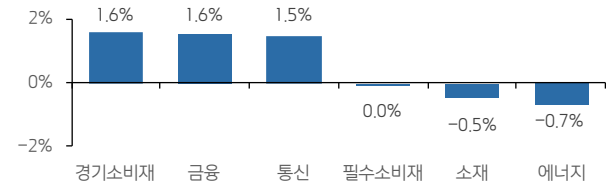
전일에도 개인, 기관, 외국인 모두 순매도에 나서는 등 수급 기반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지만, 단체 순매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미국 시장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이를 고려 시,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수급 기반은 정상화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경로로 복귀할 것 전망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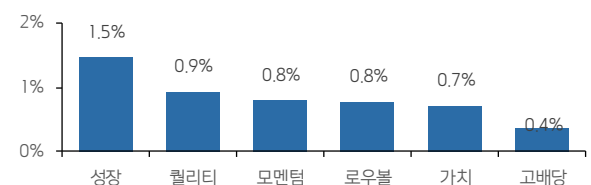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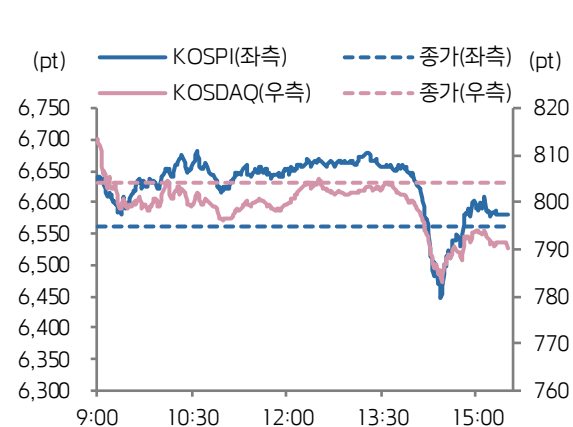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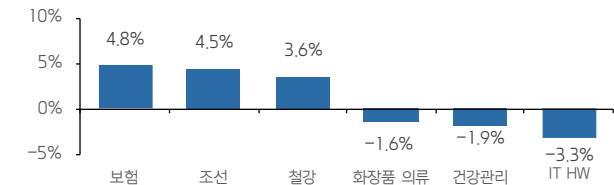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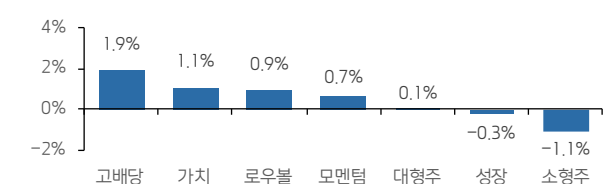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328.21	+1%	+20.73%	GM	87.22	+2.77%	+7.26%
마이크로소프트	510.12	+2.68%	+5.48%	일라이릴리	1,159.60	-0.04%	+7.9%
알파벳	342.48	+1.59%	+9.42%	월마트	108.42	+2.2%	-2.68%
메타	610.68	+3.01%	-7.49%	JP모건	362.06	+1.64%	+12.36%
아마존	258.90	+1.54%	+12.17%	엑손모빌	162.21	-1.18%	+34.79%
테슬라	376.37	+5.42%	-16.31%	세브론	211.32	-0.22%	+38.65%
엔비디아	228.45	+1.8%	+22.49%	제너럴일렉트릭	108.42	+2.2%	-2.7%
브로드컴	357.16	-2.74%	+3.2%	캐터필러	800.14	+0.99%	+39.67%
AMD	456.16	-0.2%	+113%	보잉	210.51	+0.79%	-3.04%
마이크론	958.16	+0.22%	+235.71%	넥스트에라	84.06	+1.2%	+4.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579.48	+0.26%	+56.13%	USD/KRW	1,357.00	-0.14%	-5.73%
코스피200	1,032.82	+0.13%	+70.44%	달러 지수	99.00	-0.6%	+0.69%
코스닥	790.21	-1.71%	-14.62%	EUR/USD	1.16	+0.33%	-1.02%
코스닥150	1,346.10	-2.28%	-13%	USD/CNH	6.72	-0.01%	-3.7%
S&P500	7,747.71	+1.06%	+13.18%	USD/JPY	155.81	-1.83%	-0.57%
NASDAQ	26,584.06	+1.4%	+14.38%	채권시장			
다우	53,686.11	+1.18%	+11.7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14.32	-5.79%	-4.21%	국고채 3년	3.882	-5.3bp	+93.1bp
러셀2000	2,968.27	+0.51%	+19.6%	국고채 10년	4.367	-5bp	+98.2bp
필라. 반도체	11,352.13	+0.11%	+60.27%	미국 국채 2년	4.336	-3.3bp	+86.3bp
다우 운송	20,861.52	+0.71%	+20.19%	미국 국채 10년	4.768	-1bp	+60.1bp
상해종합	3,942.09	+0.02%	-0.67%	미국 국채 30년	5.247	-1.1bp	+40.3bp
항생 H	8,385.24	-0.77%	-5.93%	독일 국채 10년	3.343	-3.3bp	+48.8bp
인도 SENSEX	76,152.86	-0.55%	-10.64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가격	DTD(%)	YTD(%)	
Eurostoxx50	6,382.59	+0.32%	+10.21%	WTI	91.30	+0.32%	+60.32%
MSCI 전세계 지수	1,154.74	+1.04%	+13.81%	브렌트유	95.52	-0.12%	+56.98%
MSCI DM 지수	4,944.06	+0.23%	+11.59%	금	4,539.90	+2.84%	+0.94%
MSCI EM 지수	1,700.62	-1.55%	+21.09%	은	66.97	+3.48%	-5.14%
MSCI 한국 ETF	180.56	+0.95%	+85.72%	구리	657.70	+1.17%	+15.75%
디지털화폐				BDI	3,331.00	+5.51%	+77.46%
비트코인	81,470.01	+5.27%	-7.05%	옥수수	540.75	-0.51%	+17.43%
이더리움	2,505.18	+4.68%	-15.87%	밀	754.25	-2.55%	+33.55%
				대두	1,316.25	+0.46%	+23.65%
				커피	295.35	-0.92%	-6.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9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